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Program Guide

# TOAST 2013

2013 SPRING Vol. 11

# 연무화 토스트

(재)안양문화예술재단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안양아트센터 | 평촌아트홀 | 알바로시자홀 | 안양역사관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430-8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T.031 687 0500 F.031 689 5000 www.ayac.or.kr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Program Guide

# TOAST 2013

(재)안양문화예술재단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Program Guide

# TOAST 2013

## Contents

- 04 KBS 교향악단 초청 음악회
- 06 2013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
- 08 2013 이판사판 콘서트
- 10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12 그와 그녀의 목요일
- 14 안양역사관 교육 프로그램
- 16 문화예술 아카데미
- 18 가족합창단 &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 20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 22 Review - 이판사판 콘서트
- 24 아트림 데이 / 토요 벵장이 문화클럽
- 26 대관 안내
- 28 오시는 길
- 30 회원가입 안내/AFCA CALENDAR

\* 프로그램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문화토스트>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계절마다 발행하는  
프로그램 가이드북입니다.  
갖 구워낸 토스트처럼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토스트 2013년 봄호 Vol.11  
발행처 안양문화예술재단 | 발행인 최대호 | 편집인 노재천  
기획총괄 송경호 | 기획편집 김주옥 | 디자인 열린기획  
430-8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T.031 687 0500 F.031 689 5000 www.ayac.or.kr

KBS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 봄의 끝자락에서 후기 낭만을 듣다

한국 대표 오케스트라와 거장 마에스트로가 만나다!  
깊은 울림과 떨림을 선사할 봄의 교향악!

폴란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인 아체크 카스프치크 (Jacek Kaspszyk)와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이 만나 품격 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프라하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으며 거장의 명성을 쌓은 마에스트로 아체크 카스프치크가 KBS 교향악단을 이끈다. 여기에 뉴욕 타임즈로부터 “천부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전무후무한 피아니스트”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는 비탈리 피사렌코(Vitaly Pisarenko)가 합류해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준다.

따뜻한 바람이 귓볼을 간지럽히는 5월,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로 펼쳐지는 후기 낭만파 음악을 들으며 계절의 여왕, 봄을 만끽하자.



▶ Jacek Kaspszyk  
▶ Vitaly Pisarenko

## Program

차이코프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B단조, 작품번호 23  
말러 -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 Information

일시/장소 2013.5.30(목) 오후 8시 /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티켓 VIP석 50,000원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할인 골드·나리회원 30% 할인 / 청소년, 클래식 음악 전공자 20% 할인

대상/소요시간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 110분(인터미션 15분)

출연 아체크 카스프치크(지휘), KBS 교향악단, 비탈리 피사렌코(피아노)

Performance

2013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

# 그 남자의 초대

100여 명의 최정상급 음악가들이 선사하는 정통 실내악 음악회!  
 Since 2005, 깊이를 더해가는 마티네 콘서트!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아침

숲속 공연장 평촌아트홀에서 펼쳐지는 클래식향연

<그 남자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2013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는 국내 마티네 콘서트의 창시자인 피아니스트 김용배 교수가 음악감독과 해설을 맡고, 국내 정상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앙상블을 이뤄 펼쳐는 해설 음악회이다.

정통 실내악 음악의 정수를 보여줄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 <그 남자의 초대>. 기품있는 연주와 친밀감 있는 해설로 여유로운 아침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Tip

- 마티네(Matine)란 아침(Matin)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비롯된 말로, 마티네 콘서트는 오전이나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을 의미합니다.
- 브런치와 함께 즐기면 더 풍성한 감동이 있습니다. (18,000원 티켓 구매 시 원두커피, 머핀 제공)

Information

**일시/장소** 2013년 3월~12월,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 / 평촌아트홀  
**티켓** 전석 18,000원 / 브런치 미포함가 전석 15,000원  
**할인** 골드·나리회원 20% 할인 / 2회~4회 패키지 20%~33% 할인  
**대상/소요시간**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 120분(인터미션 20분)

피아니스트 김용배 음악감독&해설

- 서울대 문리대 미학과, 동 대학원 피아노과 졸업
-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미국 기틀릭대 졸업
- 86년 '이달의 음악가' 상 수상
- 한국 평론가협회 제정 '88 최우수 예술가' 선정
- 전 예술의 전당 사장 역임
- 현 추계예술대 교수



꿈꾸는 아침 4.9 | TUE

두 대의 피아노의 매력적인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아렌스키의 '모음곡 No.1', 봄날의 설렘이 가득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No.5', 발랄하고 즐거운 꿈을 꾸는 것 같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삼중주 K.254' 등이 연주된다. 유려한 선율로 당신에게 꿈결같은 아침을 선물한다.  
 출연 김용배(해설), 유시연(Vn), 정유미(F), 이석준(Hr.) 외

찬란한 아침 5.14 | TUE

시대 흐름에 따른 탱고의 변천을 악장별로 반영하여 탱고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목동의 그리움과 슬픔, 봄의 경쾌함을 만끽할 수 있는 슈베르트의 '바위 위의 목동'과 사랑스런 멜로디로 생상스만의 개성과 색채가 가득한 '동물의 사육제' 등 봄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에 제격인 음악들을 선사한다.  
 출연 김용배(해설), 문혜원(Sop.) 계희정(Cl), 서수민(Va.) 외

모던한 아침 6.11 | TUE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특별한 매력을 가진 숨은 보석과도 같은 작곡가 뿔랑의 '오보에 소나타', 기묘한 집시의 리듬과 선율에 자유를 사랑하는 정신을 담은 드보르작의 '집시의 노래', 우아하고 화려한 환상미가 돋보이는 멘델스존의 '8중주' 등 진취적이고 개성 강한 곡을 선사한다.  
 출연 김용배(해설), 이택주(Va), 김상진(Va), 우정은(Vn.) 외

\* 공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초대>**  
 7월~12월 공연일정

---

7. 9(화) 11am 달콤한아침  
 9. 10(화) 11am 영그는아침  
 10. 8(화) 11am 화려한아침  
 11. 12(화) 11am 그리운아침  
 12. 10(화) 11am 아늑한아침

**아침음악회**  
 VIP 관객으로 모십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전화 공연 예매 시 35%할인 및 지정석 제공 등 VIP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Performance

# 이판사판 더하기 사판 콘서트

신명나는 우리음악, 여섯 빛깔우리가락

## 이판사판 콘서트

여섯 판의 국악 만찬, 우리 전통예술의 모든 것!

### 매 짝수달 넷째 주 목요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국악 축제

멋과 흥이 있는 우리 문화 잔치가 시작된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판사판 콘서트는 6회에 걸쳐 우리 전통예술의 모든 것을 보여줬고, 올해도 이 열기는 계속된다.

이판사판 콘서트는 소리, 춤, 타악, 연희극 등 장르별로 다양하게 골라볼 수 있다. 매 회마다 스타 예술가와 지역 예술가들이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이며, 걸쭉한 입담의 해설이 가미되어 지루하지 않다.

우리 전통예술의 모든 것, 이판사판 콘서트를 주목하자.



### Information

**일시/장소** 2013년 2월~12월, 매 짝수달 넷째 주 목요일 오후 8시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티켓** VIP석 30,000원 / R석 20,000원

**할인** 골드·나리회원 30% 할인

**대상/소요시간**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 120분(인터미션 15분)



### 향 내음 가득한 소리판 4.25 | THU

꽃처럼 여리다가 파도처럼 몰아치는 힘이 있는 소리꾼 명창 안숙선이 작년 11월 이판사판 콘서트 관객들이 보여준 성원에 보답하고자 2013년 소리판의 무대에 다시금 선다. 번거로운 설명 없이도 명창이 꾸미는 판소리 무대는 힘과 감동이 함께하기에 소리판을 더욱 빛나게 해줄 예정이다. 서도 민요와 경기민요, 동부민요 등 소리판의 정수를 느낄 수 있으며, 민요와 함께 한국무용도 곁들여 진다. 산타령의 황용주와 아홉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함께한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소리판의 향 내음에 취해보자.

### 하늘하늘 춤판 6.20 | THU

여름을 재촉하는 6월 하순. 명인들의 춤사위로 인해 무대는 이미 한 여름 밤이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태평무는 관람객 한명 한명의 태평성대를 기원해주는 춤이 될 것이며, 미알춤은 강령 탈춤에서 보여주는 해학이 가득한 춤으로 거듭난다. 보는 이들에게 익숙한 승무는 한국 무용의 '정중동'과 '동중정'의 정수가 잘 표현되어 아직 한국무용에 생소한 관람객도 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창작무와 함께 국악의 단소와 민요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공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판사판 콘서트>

8월~12월 일정

8.22(목) 8pm 출판

10.17(목) 8pm 불판

12.19(목) 8pm 놀판







정통 클래식 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의 대표작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보다 특별할 수 없다! 어린이날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환상과 모험의 세계로 온 가족이 함께 떠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럴의 동명 원작 소설을 서울발레시어터의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이 각색한 발레극이다. 제임스 전의 참신하고 기발한 해석으로 재탄생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변화를 잘 살린 다채로운 무대효과로 상상력을 극대화시킨다. 여기에 클래식, 현대음악, 테크노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탁월한 음악 편집이 더해져 극 전개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초연 이후 13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무대 위, 살아 숨 쉬는 캐릭터와 한시도 눈을 땄 수 없는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한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린이날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 Information

**일시/장소** 2013. 5. 4(토) ~ 5. 5(일) 오후 3시 /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티켓** 앨리스석(어린이) 20,000원 / 붉은여왕석(성인) 15,000원  
 시계토끼석(3인가족) 35,000원 / 체셔고양이석(4인가족) 45,000원  
**할인** 골드·나리회원 30% 할인 / 어린이날(5. 5) 앨리스석 50% 할인  
**대상/소요시간** 48개월 이상 관람가 / 90분(인터미션 15분)  
**안무** 제임스 전(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출연** 서울발레시어터

“

평범한 소녀 앨리스는 어느 날, 방 안에 진열된 인형들 속에서 살아난 흰 토끼를 따라 TV 속 낯선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TV 속 환상의 세계에서 신비한 모험을 하던 중 위기에 처하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잠이 깬 앨리스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의 숨을 쉰다.

”



“항상이 모양입니다. 사람을 귀찮게 만들죠.  
그런데 왜... 정민이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을까요?”



##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엄선한 대한민국 연극계의 화제작 그와 그녀의 목요일

사랑과 이별을 반복했던 한 남녀의 로맨틱 드라마



서로를 모르고 살아온 시간보다 알고 지낸 시간이 더 긴 ‘그(정민)’와 ‘그녀(연옥)’는 매주 목요일마다 자신들만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그들의 대화는 비겁함, 행복, 역사 등 거창한 주제로 시작되지만, 어느새 둘만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 사랑과 이별을 경험했던 그들은 추억의 순간을 되돌아 보며 서로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깨닫게 되는데... 개성파 배우 조재현, 배종옥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상황 및 현실적인 캐릭터 설정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친구와 연인 사이라는 복잡미묘한 관계속에 흐르는 감정을 지적이고 위트있는 대화로 풀어낸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 궁금해진다.

### Information

**일시/장소** 2013. 6. 27(목) 오후 3시 / 6. 28(금) 오후 8시  
6. 29(토) 오후 3시, 6시 /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티켓** VIP석 40,000원 / R석 30,000원  
**할인** 골드·나리회원 30% 할인  
한낮석(6. 27) 15,000원 / 불금석(6. 28) 30,000원  
**대상/소요시간** 중학생 이상 관람가 / 100분(인터미션 없음)  
**출연** 6. 27(목)~6. 28(금) 정웅인(정민 役), 정재은(연옥 役)  
6. 29(토) 조재현(정민 役), 배종옥(연옥 役)

안양역사관 성인 교육 프로그램

## 제8기 박물관 대학 - 근·현대사

자주적 근대국가를 위한 꿈과 노력



안양역사관에서는 역사의 걸을 심도 있게 다루는 역사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고고, 역사, 미술, 민속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물관 대학에서는 조선시대 봉건사회를 변혁하여 새로운 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일어난 혼란스러웠던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본다.

### Information

**교육기간** 2013. 4. 19(금) ~ 6. 21(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교육장소** 안양역사관 이룬강의실  
**접수기간** 2013. 3. 14(목) ~ 4. 18(목) **대상/정원** 만 19세 이상 성인 / 60명(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인터넷/방문 접수 **교육비** 150,000원(\*답사비 50,000원 포함)  
**문의** 031-687-0546

### Program

강좌	일자	주제	강사
1차	4. 19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차	4. 26	러일전쟁과 전후 한국사회	조재곤(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교수)
3차	5. 3	대한제국과 을사조약	도면희(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4차	5. 10	현장답사(군산)	정재은(안양역사관 학예연구사)
5차	5. 24	대한제국기의 도시와 건축	안창모(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6차	5. 31	현장답사(경복궁 일대)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7차	6. 7	서구인이 바라본 근대한국	박수영(건국대학교 겸임교수)
8차	6. 14	근대복식을 통해 본 생활문화	김영재(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9차	6. 21	한국 근대의 전통회화	이태호(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안양역사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 교과서 속 문화재 이야기 - 기와



〈교과서 속 문화재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준별 맞춤형으로 이론 및 실습 위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의 주제는 '기와'이다. 안양사지 출토 기와를 중심으로 미션 수행, 전시실 체험, 문화재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 Information

**교육기간** 2013. 4. 13(토) ~ 8. 24(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육장소** 안양역사관 및 주변 공원  
**접수기간** 2013. 3. 7(목) ~ 8. 24(토) **대상/정원** 초등학생 및 청소년 단체/ 40명(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단체는 전화 접수) **교육비** 10,000원 / 단체 8,000원(20인 이상)  
**문의** 031-687-0546

### Program

프로그램	대상	일정	구성
모아봐요! 우리 문화재	초등학생(1~2학년)	둘째 · 넷째 주	이론 및 영상강의 전시실 체험
나는야! 문화재 수집가	초등학생(3~6학년)	첫째 · 셋째 주	문화재 만들기



‘문화로 깨우는 새로운 시작

##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 아카데미

봄은 어느 계절보다 설렘 가득하다. 그 설레는 마음을 음악과 미술, 몸짓과 글쓰기 등 예술 장르로 표현해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봄맞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능이 없다고, 소질이 없다고 움츠려 있다면 다음 봄도, 그 다음의 봄도 표현해 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자. 새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니까.

우쿨렐레, 기타, 색소폰 등 악기를 배우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한 곡, 한 곡 연주 할 수 있는 노래가 많아질수록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한국고전 무용이나, 발레 등을 배우는 것은 몸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덤으로 줄 수 있는 강의다.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봄의 풍경을 담고 싶다면 데생, 수채화, 유화, 사진 등을 배우길 권한다.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다양한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니 각자의 취향과 소질에 맞게 선택해 보자.

### Information

**교육기간** 2013. 5. 6(월)~8. 24(토) **교육장소** 평촌아트홀 **접수기간** 2013. 4. 15(월)~5. 3(금)  
**대상/정원** 만 19세 이상 성인 및 어린이 / 강좌마다 다름(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인터넷/전화/방문 접수※일요일은 접수 및 문의 불가) **교육비** 110,000원~170,000원  
**수강혜택** 1인 2강좌 이상 신청 시 5% 할인 / 안양문화예술재단 기획공연 예매 시 할인 적용  
**문의** 031-687-0556

### Program

<b>음악 아카데미</b>	음악이 주는 감동과 품격, 여유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클래식 이론 및 악기 강습강좌로 구성 색소폰, 드럼, 기타, 우쿨렐레, 사물놀이 등
<b>미술 아카데미</b>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론 및 실습강좌 구성 데생, 수채화, 유화, 동양화, 디지털 카메라 등
<b>무용 아카데미</b>	몸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비롯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실속 강좌 구성 발레, 재즈댄스, 라인댄스, 라인요가, 한국무용 등

※ 세부 교육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전국 최초 가족합창단의 힘찬 새 출발

# 2013 안양문화예술재단 가족합창단

지난 2011년,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예술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가족합창단>을 창단했다.

시작은 녹록치 않았다. 높낮이가 서로 다른 아이와 어른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 과정으로 단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나눈 시간만큼 가족들은 서로가 더 소중해졌다.

이제 3년차. 가족합창단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노래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화목'이다.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열정'과 온 가족이 토요일마다 참여할 수 있는 '화목함'이라면 자격요건은 충분하다.

올해 가족합창단은 활동 폭을 넓혀 다양한 무대에서 더 많은 이웃을 만날 예정이다. 정기 공연뿐 아니라 문화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겠다. 노래로 이웃과 가족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가족합창단 지원을 망설이지 말자.

문의 031-687-0543



## 엄마들의 반란은 올해도 계속 된다

# 2013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다. 그러나 엄마와 아내 역할에 충실 하느라 제 이름을 잊고 산 주부들. 그들이 일상 속 작은 '반란'을 꿈꾼다.

2012년,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이란 이름으로 주부들이 뭉쳤다. 반란을 꿈꾸는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솔직해 지기다.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하고 감추고 싶었던 저마다의 아픔을 쏟아내며 공감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8개월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소중한 시간을 나눴고, 이들의 이야기는 한 울, 한 울 엮여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이제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 모두에게 외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지난 12월, 안양아트센터 무대에 올려진 이 연극은 많은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단원들은 무대 위에 선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나'를 발견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각자의 이름을 하나, 둘 되찾았다. 그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은 2013년에도 계속된다. 올해는 공연장 밖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동네 공원에서, 시장에서, 축제에서 이들의 반란을 목격한다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끼 있는 엄마들의 도전을 기다린다.

문의 031-687-0543

Anyang Public Art Project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Anyang Public Art Project)는 미술,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활용하여 안양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 환경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국내 유일의 국제 공공예술 행사로 2005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도심 환경 개선을 비롯해 조형물 설치, 시민과 관객이 소통하고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APAP는 올해로 4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광주, 부산, 서울미디어비엔날레와 더불어 국내 4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뉴욕건축가협회 주최 <2011년 디자인 어워드> 건축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우수 기관과 단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05)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05년)는 도시 개발 속에서 기성 세대들에게 잊혀져가는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꿈과 자유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장소로 안양유원지를 선정, '역동적 균형'이란 주제로 영구작품 52점의 작품을 설치하였다.

**Tip**

- APAP 설치작품은 안양예술공원, 중앙공원, 학운공원 등 안양 지역 곳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안양예술공원 속 작품에 한해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10인 이상, 사전 예약 시 이용 가능  
(문의 031-687-0552)



알바로시자틀  
(알바로 시자 Alvaro Siza, 포르투갈)



안양 전망대  
(MVRDV, 네덜란드 건축디자인 그룹)

###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07)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07년)는 평촌에 거주하는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현대 미술을 통해 도시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도시의 정체성과 환경재생을 위한 '전유, 재생, 전환'이란 주제로 신도시의 도심과 공원 등지에 영구작품 36점을 설치하였다.



실비 플러리  
(비토 Vitteaux, 스위스)



헬로, 안양 위드 러브  
(야요이 쿠사마 Yayoi Kusama, 일본)

###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10)

제3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2010년)는 일시적이며 변화무쌍한 현대 도시 속에서 '새로운 지역사회'에 대하여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새 동네, 열린 도시 안에서'란 주제로 추진됐다.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연결된 단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창조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다양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영구작품 4점이 설치되었다.



오픈 스킴  
(롯데 LOT-EK, 뉴욕 건축디자인 그룹)



오픈 파빌리온  
(매스스터디스 MASS STUDIES, 한국)

###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13)

2013년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13)는 'Public Story'라는 주제로 열리며, 지난 3회 동안의 APAP 리뷰, 아카이브 및 공공미술 라이브러리 구축 등 APAP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이 기반을 토대로 도시 환경의 일부가 된 공공미술을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비엔날레 배움 위원회



만들자 공작소



## “달이 차오른다.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어울려 놀자”

음력 정월, 가려진 초승달에 살이 올라 어느새 둥근 달이 짝 찬 보름이다. 선조들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달이 가득 차는 정월 보름을 큰 명절로 삼았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달을 보며 한 해의 풍년과 가족의 안녕을 빌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오곡밥과 진채식(陳菜食)을 나눠 먹으며 들과 산, 마을 어귀에서 신명난 놀 판을 벌였다. 진정한 마을 축제의 날이었다. 정월 대보름의 그 풍성하고 신나는 어울림 판이 2월 21일에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도 벌어졌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2013년 <이판사판 콘서트>가 대보름맞이로 첫 판을 연 것이다.

세상에서 흔히 쓰이는 ‘이판사판(理判事判)’은 원래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한 판단과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판단을 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조선시대부터 막다른 궁지에 몰린다는 뜻으로 통용되었는데, 2012년에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기획, 제작한 ‘이판사판 콘서트’는 이와 다르다. 소리판과 춤판의 2판에 두드림판(타악기)과 불판(관악기), 춤판(탈춤)과 놀판(마당놀이)의 4판을 더했다는 뜻으로 우리 음악의 여섯 빛깔을 살린 국악 콘서트다. 작년에 각 개성을 살린 6차례의 공연을 펼쳤고 와인 파티와 함께 화제를 모았다. 지루하고 단조로운 국악이 아닌 멋과 흥을 돋우며 국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확대한 공이 크다. 그렇게 따뜻한 호응과 성황을 이루었던 ‘이판사판 콘서트’가 2013년에 더 새롭고 흥미로운 구성으로 찾아왔다. 올해에는 정월 대보름맞이기념 공연을 첫 판으로, 특별히 안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악 예술인들의 무대가 꾸며졌다. 소리판, 춤판, 놀이판, 두드림판이 골고루 엮여졌고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에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는 관객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즐거운 움직임’이라는 뜻을 가진 타악그룹 악동(樂動)이 문굿을 열고 이어 판굿을 벌였다. 마을의 집집마다 풍물패가 다니면서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귀신을 달래주었다는 문굿. 그리고 음악과 놀이, 춤이 함께 혼합되어 풍물 농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판굿으로 공연은 시작부터 흥겨웠다. 발로는 땅을 출렁이며 춤을 추고, 손으로는 악기를 맛깔스럽게 연주하고, 머리로는 상모를 감아 돌려 하늘을 휘젓는 판굿을 보며 들쭉이는 어깨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찬 박수와 추임새로 장단을 맞추는 관객들. 너나 할 거 없이 한데 어우러져 흥겨움이 넘쳤다.

소리꾼 김창진이 구성진 가락으로 한 해 액을 풀어주고 축원 덕담하는 비나리가 더해질 때 무대 위에 차려놓은 고사 상 앞으로 관객의 발걸음이 하나, 둘 이어졌다. 귀 밀 머리가 희끗한 남자, 수줍은 듯 잔 걸음의 여자, 인생사 희노애락을 함께 지나온듯한 부부, 씩스러운 듯 쭈뼛거리려는 어린 아이들에게 괜찮다 손짓하며 함께 오르는 또 다른 젊은 여자... 그들이 내심 빌었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저 관객으로 무대를 지켜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와 풍습에 몸과 마음으로 호응하며 즐길 줄 아는 이들일 터였다.

은은한 달빛 아래 꽃 잎 하나가 바람에 하늘거리는듯한 춤사위를 보여 주던 차명희의 진주교방굿걸이춤은 하얀 비선발의 발 디딤과 손목사위가 일품이었고, 소리꾼 강영민이 새해를 맞아 지혜로운 눈이 번쩍 떠지길 바란다는 의미로 들려주던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가 눈 뜨는 장면은 훈훈한 흥취를 더했다. 지혜의 눈이 ‘번쩍’ 떠지길 바란다면 심봉사의 눈은 ‘꿈적꿈적’ 떠드는 익살스런 표현이 재미있었다. 단원 대부분이 안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주부, 공무원,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어울림풍물예술단의 풍물은 마치 우리네 이웃과 함께 하는 정월 대보름 마을 축제의 한 편인 양 친근해서 모두 함께 놀았다. 그 어울림이야말로 흥과 멋이 살아있는 우리 음악, 우리 가락의 참 맛이 아닐까 싶다.

정겹고 신명난 무대로 엮어진 <이판사판 콘서트>는 더 이상 지루하거나 낯설지 않은 국악으로 우리 곁에 한 걸음 다가온 공연이었고, 생활 속에서 국악을 즐기는 이들과의 흥겨운 만남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컵가에 맴도는 가락에 고개를 까덕거리다가 눈을 들어 어둔 밤하늘을 더듬는다. 휘영청 둥근 달이 떴으려나... 소원을 빌어 볼까나...

글. 장은정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나누고, 저장하는 생애사(生涯史) 기록 전문단체 (주)이카니너에서 강사 및 작가활동을 하고 있다.



# 매주 木요일은 “Art 林” DAY

2013. 4. 25(월) ~ 11. 28(목) 매주 목요일 3:30pm  
평촌아트홀 카페 ART 林



- \* 아트림 데이(ART林 DAY)에는 공연, 영화, 강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단 무인카페 이용료 1천원을 내시면 원두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 매달 마지막 주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 4월-미술평론가 김종길의 <그림 읽어주는 남자>
- 5월-동아일보 유윤종 클래식 전문기자의 <베르디와 바그너 탄생 200주년>



함께 파트너를 이룰 시민예술가를 찾습니다.  
아트림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해 주실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를 찾습니다.  
5인 이내로 구성된 팀으로 40분 이내 공연 가능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031-687-0543



토요 베짚이 문화클럽

# “흙(土)을 노래(謠)하는 베짚이 문화클럽”

2013. 4. 20(토) ~ 11. 23(토) 매주 토요일  
평촌아트홀 및 주변 공원

- \* 토요 베짚이 문화클럽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흙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이를 노래와 시각예술로 표현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 참가비는 무료이며, 가족 단위로만 참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31-687-0556



# 안양문화예술재단 대관 안내



안양 문화예술의 중심, 안양아트센터와 평촌아트홀, 알바로스자홀의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관시설** 안양문화예술재단 공연장 및 전시장

구분	주요 시설현황	
안양아트센터	관악홀(대공연장)	종합구성물 공연(1,127석)
	수리홀(소공연장)	종합구성물 공연(382석)
	컨벤션홀	539㎡ 규모 행사장(행사, 교육, 워크샵 등)
평촌아트홀	갤러리 미담	349㎡ 규모 전시실(레일식 무빙파티션 설계)
	공연장	클래식 등 연주회 전용홀(638석)
알바로스자홀	기획전시실	171㎡ 규모 전시실(레일식 무빙파티션 설계)
	현대미술전시관	526㎡ 규모 전시관(반구형 설계)

**접수기간** 정기대관(매년 10월), 수시대관(수시 공지)

**접수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ds2obi@hanmail.net)

**대관문의** 031-687-0514(공연장, 행사장), 031-687-0534(전시장)

안양사지 출토 瓦 특별기획전

# 천년고찰의 고즈넉함을 거닐다



2013. 6. 28(금)~8. 26(월)

10:00~18:00

안양역사관 기획전시실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의 안양사지(安養寺址) 출토 유물 최초 공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안양사지 출토 유물과 삼국시대 외당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안양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안양사지 유물  
전시를 통해 지역민으로서의 역사적 자긍심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관람료** 2,000원 / 경기도민 1,000원 / 단체(20인 이상) 1,000원

**문의** 031-687-0546



## 문화생활

###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즐겨보세요

**안양아트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8동 550)  
 지하철 1호선 명학역(1번 출구) ▶ 도보 5분  
 버스 안양아트센터, 성결대, 명학역 정류장 하차  
 • 광역버스 333, 350, 1303, 3330  
 • 일반버스 1, 1-2, 3-1, 5, 8-2, 11-2, 15, 15-2, 20, 31-7, 32, 35, 88, 303, 4425, 5530, 5531, 5623, 5624  
 • 마을버스 10-1, 10-2

**평촌아트홀·안양역사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갈산동 1112)  
 지하철 4호선 범계역 하차 후 4-1번 출구 ▶ 버스 환승(3, 5-2)  
 4호선 평촌역 하차 후 1번 출구 ▶ 버스 환승(52)  
 버스 평촌아트홀, 자유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정류장 하차  
 • 광역버스 333, 1650, 350, 3330, 7501  
 • 일반버스 5-2, 52  
 • 마을버스 3

**알바로시자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안양동 1351)  
 지하철 1호선 관악역(2번 출구) ▶ 도보 20분  
 버스 안양예술공원 노외주차장,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정류장 하차  
 • 광역버스 900 ▶ 도보 10분  
 • 일반버스 1, 20, 51, 5-2, 5503, 5624, 5625, 5626, 5713 ▶ 도보 10분  
 • 마을버스 2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 안양역사관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합니다.



## 안양문화예술재단과 행복한 동행 골드회원 가입 안내

문화예술로 행복한 일상의 중심에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과 무대 위의 감각적인 몸짓,  
그리고 황홀한 감동을 선사하는 명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을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골드회원

- 가입비 5만원 / 혜택기간 5년
- 회원카드 발급
- 기획공연 티켓 예매 시 최대 30% 할인
- 재단 운영 카페&아트샵 10% 할인
- 다양한 문화이벤트 제공(공연 초대 등)

상세 가입안내는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 031-687-0500 www.ayac.or.kr

[twitter.com/e\\_afca](https://twitter.com/e_afca) [facebook.com/e\\_afca](https://facebook.com/e_afca) [Blog e\\_afca.blog.me](https://blog.e_afca.blog.me)

행사명	일시/장소	문의
2013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 <그 남자의 초대 - 꿈꾸는 아침>	4. 9(화) 11:00 평촌아트홀	안양문화예술재단 031 687 0500/0555
2013 이판사판 콘서트 <향 내음 가득한 소리판>	4. 25(목) 20:00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어린이날 가족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5. 4(토)~5(일) 15:0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2013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 <그 남자의 초대 - 찬란한 아침>	5. 14(화) 11:00 평촌아트홀	
KBS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봄의 끝자락에서 후기 낭만을 듣다>	5. 30(목) 20:0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2013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 <그 남자의 초대 - 모던한 아침>	6. 11(화) 11:00 평촌아트홀	
2013 이판사판 콘서트 <하늘하늘 춤판>	6. 20(목) 20:00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6. 27(목) 15:00 / 6. 28(금) 20:00 6. 29(토) 15:00 / 18:00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4. 13(토) 11:00/13:00/15:00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동방뮤지컬컴퍼니 02 707 1232
이미자 호 콘서트	4. 27(토) 15:00/18:0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SJ커뮤니케이션 1644 3031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자극 영상음악회 <사계와 동물의 사육제>	5. 7(화) 11:00/14:0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서울양성블오케스트라 02 421 5827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숨은 음악 찾기	5. 18(토) 17:00 평촌아트홀	제이아트 02 2051 2178
어린이 음악극 <호랑님 생일날>	6. 21(금) 10:20 / 11:2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극단 보물상자 032 819 1002
안양역사관 성인 교육 프로그램 <제8기 박물관 대학 - 근·현대사>	4. 19(금) ~ 6. 21(금) 매주 금 10:00 안양역사관	안양문화예술재단 031 687 0546
안양역사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교과서 속 문화재 이야기 - 기와>	4. 13(토) ~ 8. 24(토) 매주 토 10:00 안양역사관	
문화예술 아카데미	5. 6(월)~8. 24(토) 평촌아트홀	안양문화예술재단 031 687 0556
안양사지 출토瓦 특별기획전 <천년고찰의 고즈넉함을 거닐다>	6. 28(금)~8. 26(월) 10:00~18:00 안양역사관 기획전시실	안양문화예술재단 031 687 0546

※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